

그림자로 환원되는 빛의 시선을 따라 인간을 닮은 기계들이 꿈틀거린다. 대칭을 벗어난 기형적 외팔이 로봇의 거칠고 투박한 움직임은 그림자의 중첩, 왜곡, 합성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인간적 익숙함'이란 착시적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자동화된 무대장치이자 등장인물들로 작동하는 로봇들은 멀지 않은 미래의 기계의 구속과 같은 불안한 미래를 환기시키지만 실은 인간의 제어영역 안에 있는 구속된 기계들이다. 90년대 클럽씬의 동료들과의 기억과 거리의 소외된 사람들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로봇들은 제한된 몸짓 안에서 서로를 비추며 춤추고, 노래한다.

5인의 크리에이티브팀과 함께 제작된 이 창작극은 로봇을 이용한 메카니컬 시어터(Robotic Mechanical Theater)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그 가능성을 탐구한다.



Machines that resemble humans scramble along the lines of light that are reduced to shadows. The rugged, clunky movement of the deformed one-armed robot out of symmetry raises the illusion of 'human familiarity' to us through the process of overlapping, distorting and composing shadows. Robots that operate as automated stage equipment and characters evoke an unstable future, such as the restraint of a machine not far from the future, but in reality they are constrained machines in human control. Designed with the memory of colleagues in the 90s club scene and the alienated people in the streets, these robots dance and sing to each other in limited gestures.

Developed with five members of the creative team, this play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a new genre of robotic mechanical theater.





리뷰 **이홍도**

review by **Hong-doe Lee**

2022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QUAD 개관 페스티벌 초청작 《싸구려 인조인간의 노랫말 2 (로봇 야상곡)》(8월 26~28일, 대학로극장 퀴드QUAD)의 주인공은 퍼포머-로봇 극단원들이다. 이들은 극히 절제된 정서 표현만으로도 비극과 희극 모두에 능수능란한 연극집단이다. 동시에 우주적 테마로 오케스트레이션된 화음을 선보이는 연주자들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첨단의 안무를 선보이는 댄스컴퍼니이며 광대무량한 우주의 어느 가락을 정처 없이 부유하는 유랑극단이자 유령극단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들의 퍼포먼스를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로보틱 메카니컬 씨어터(Robotic Mechanical Theater)라는 형식을 훌쩍 넘어 복합적이면서도 교차적이고 통합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퍼포먼스는 탈장르적인 것으로 보이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의 고유한 장르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공연이 시작하기 전, 하우스 오픈 때부터 관객들은 퍼포머-로봇 극단원들을 볼 수 있다. 멈춰 있는 그들 모습은 낯설다. 일전에 그들의 움직임을 본 적 있는 이들에게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에게도 모두 말이다. 이는 실생활에서 우리 주변을 둘러싼 기기 대부분이 매끈함과 세련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공연의 퍼포머-로봇은 그렇지 않다. 외양에서 풍기는 인상부터 거칠고 불안정하며 아날로그적이다. 작동할 때의 움직임과 사운드 또한 그러하다. 첫 인상과 달리 이 퍼포머-로봇들이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퍼포머-로봇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적 시선의 고유함에서 만들어지는 묘한 감동은 언제부터 관객들 안에서도 움트는가.

The main characters of <Cheap Android Songs 2 (Robot Nocturne)> (August 26-28, Daehakro Theater QuadQUAD) invited to the 2022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Foundation Daehakro Theater QuadQUAD opening festival are performer-robot troupe members. They are a theatrical group that is adept at both tragedies and plays with extremely restrained emotional expression. At the same time, they are also seen as performers presenting chords orchestrated with a cosmic theme. Also, they are a dance company that showcases cutting-edge choreography, and it feels like a wandering troupe or a ghost troupe floating aimlessly in a certain evening in the vast universe. It is not easy to define their performances as one genre. This is because it goes far beyond the form of Robotic Mechanical Theater and is complex, intersectional, and integrated. Their performance seems to be outside the genre, but it seems to form a unique genre in itself.

Before the performance starts, from the house opening, the audience can see the performer-robot troupe members. The appearance of them standing still is unfamiliar. Both those who have seen their movements before and those who have never seen them. This is also because most of the devices surrounding us in real life aim for sleekness and sophistication.

continued

continued

이 공연은 일종의 열린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듯하다. 단방향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기보다 관객 또한 적극적인 수용자로서 공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단일한 의미망이 아닌 각자의 맥락과 독해 속에서 이 작업을 해석하고 조립하고 재구성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이 작업은 고유한 언어인 퍼포머-로봇의 무대 언어로서 관객들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때 사운드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퍼포머-로봇의 기능적인 움직임 가운데 만들어지는 기계음은 여러 섬세하고 정교한 엠비언스와 함께 공연 내내 계속된다. 이 금속성의 기계동작음은 현대적이면서도 아날로그한데, 어떤 대목에서는 묘하게 감수성을 건드리기도 한다. 그 와중에 사운드는 각 장면에 리듬과 이야기와 기승전결을 부여하며 전체 흐름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기능하는 듯하다. 전통적인 드라마 형식이나 선형적인 서사를 따르지 않기에 더욱이 그렇다. 사운드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전체와 부분은 유기적으로 관계 맺어나간다.

이 공연은 퍼포머-로봇의 기계음과 엠비언스를 비롯한 무수한 소리값들로 차 있으면서 동시에 연출적으로 긴장감 있는 여백들도 만들어낸다. 청각뿐 아니라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특히나 이러한 지점이 부각되는 것은 그림자극이라는 형식에서다. 다수 장면이 그림자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퍼포머-로봇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러나는 형태일 때도 있고, 저 너머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퍼포머-로봇이 오직 그림자만을 통해서만 제시되는 형태일 때도 있다. 동시대의 다양한 프로젝션 및 맵핑 기술을 놓아두고 아날로그적으로 직접 그림자를 연출하기에 발생하는 효과도 있다. 구현하기 까다로우며 여러 제한 조건이 수반되는 이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유한 정서가 있는 것이다. 벽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고 그 실체를 상상하는 일이 가지는 원형적인 낭만성이랄까. 증폭된 그림자를 통해 장면은 연극적 상상력으로 채워진다. 중국에 이 공연은 퍼포머-로봇들의 군무(물리적인 동작 자체는 극히 제한적이지만)로서 대단원이자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데, 이 또한 스펙터클의 절제와 연극적 상상력을 통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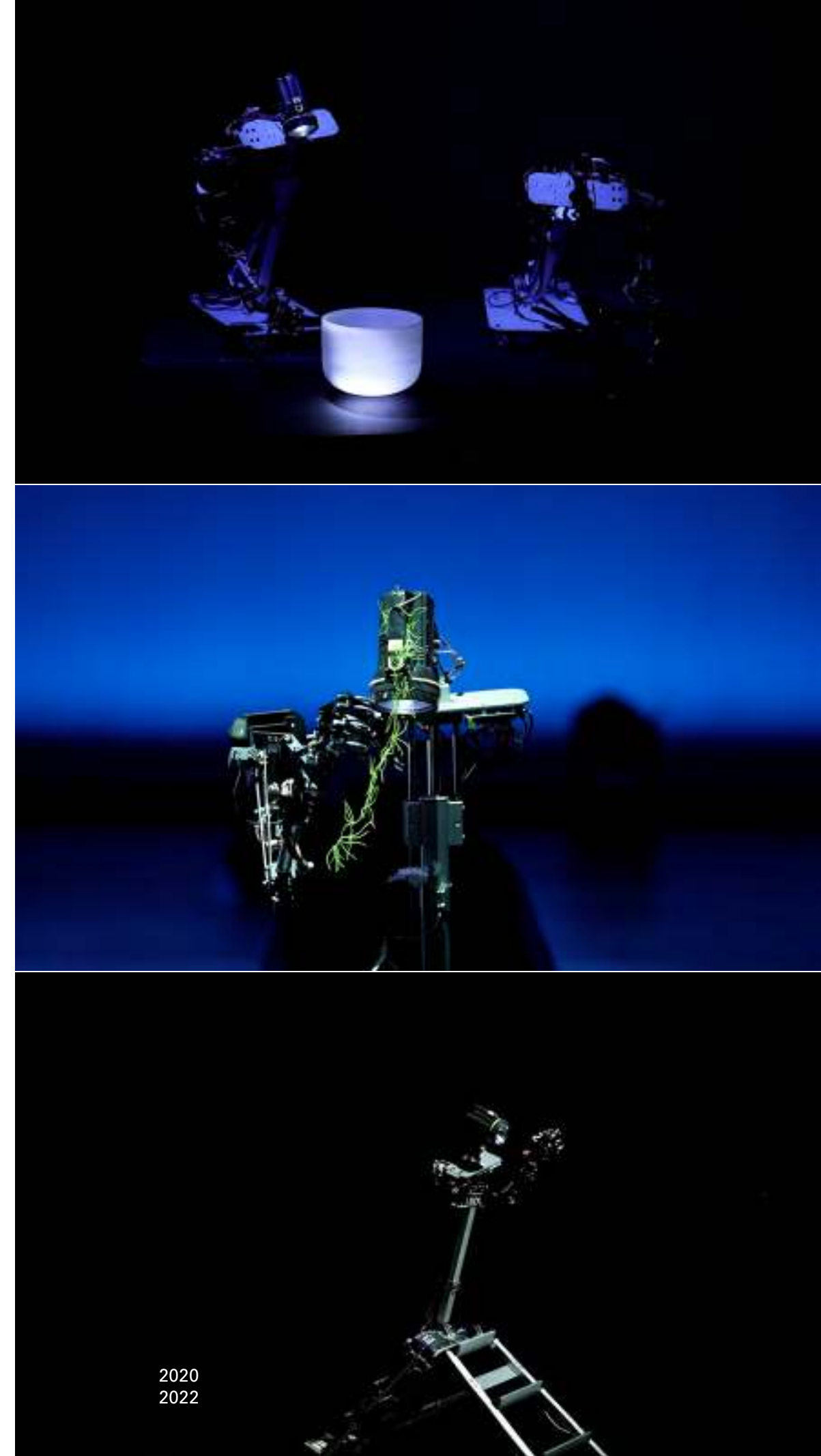
눈앞의 대상이 실시간으로 퍼포밍하기에 만들어지는 공연 장르 특유의 생동감과 라이브니스가 이 퍼포먼스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핵심은 퍼포머가 로봇, 그것도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의 로봇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인간의 관점에서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무가 펼쳐진다. 동일한 수행을 하더라도 인간 퍼포머가 했다면 전혀 달랐을 모션들이 퍼포머-로봇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이는 로봇이라고 하는 오브제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유희적 특징이기도 하지 않을까.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하체가 사다리로 된 퍼포머-로봇, 하늘에 손 뻗는 퍼포머-로봇과 그것의 스캐닝, 물속에서 건져 올린 듯 머리에 물풀을 매단 퍼포머-로봇, 우주 공간을 부유하는 존재처럼 보이는 퍼포머-로봇, 부채살만이 앙상히 남은 부채를 든 퍼포머-로봇... 이들을 보며 연출가 피터 브룩의 그 유명한 말(‘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빈 무대가 될 수 있다. 누군가 이 빈 공간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다른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연극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을 떠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However, the performer-robot of this performance is not like that. The impression from the exterior is rough, unstable, and analog. So are the movements and sounds when operating. Contrary to the first impression, at what point do these performer-robots feel warm and human? Since when does the strange emotion created by the uniqueness of the artist's gaze toward the object of the performer-robot sprout even in the audience?

This performance seems to consist of a kind of open text. This is because the audience also participates in the performance as an active acceptor rather than a unidirectional message being delivered. The audience interprets, assembles, and reconstructs this work in their own context and reading comprehension rather than a single semantic network. Nevertheless, this work speaks to the audience as a unique language, the stage language of the performer-robot. Sound plays a big role here. The mechanical sound created during the functional movements of the performer-robot continues throughout the performance along with many delicate and sophisticated ambiances. This metallic mechanical sound is both modern and analog, and in some parts, it strangely touches the sensibility. In the meantime, sound seems to functio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hat lead the overall flow, giving rhythm, story, and climax to each scene. It is all the more so because it does not follow the traditional drama form or linear narrative. Through the repetition and variation of sound, the whole and the part form an organic relationship.

This performance is filled with countless sound values, including mechanical sounds and ambiances of performer-robots, and at the same time, it creates spaces with tension in the direction. Not only in hearing, but also in visual aspects. In particular, this point is highlighted in the form of a shadow play. Many scenes are composed of shadow play, sometimes in a form in which the performer-robot and shadow are revealed at the same time, and sometimes in a form in which the performer-robot, which is located somewhere over there, is presented only through the shadow. There are also effects that arise from directly directing shadows analogously, leaving behind various contemporary projection and mapping technologies. There is a unique emotion created through this method, which is difficult to implement and has many limitations. It is the archetypal romance of seeing a shadow cast on a wall and imagining its reality. Through the amplified shadow,

continued



continued

커튼콜에서는 인간 스탭들과 퍼포머-로봇이 모두 함께 나와 관객들과 인사를 나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 관객들은 퇴장하며 무대 위에 남은 퍼포머-로봇 극단원들을 볼 수 있다. 작동을 멈춘 채 노출되어 있는 그들은 하우스 오픈 상태에서 극장에 들어오며 봤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극장을 나서는 시점에 그들 모두는 첫 장면에서와 달라 보인다. 심지어 그들 주변의 조명기를 비롯하여 스크린, 포그머신, 미러볼과 같은 무대 장비들마저도 그러해 보인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멋진 신세계이자 오래된 미래로서 <싸구려 인조인간의 노래2(로봇 야상곡)>이 이곳 극장을 관통해 지나갔기 때문이다. 너무나 ‘극적인 방식’으로 이 ‘심각한 밤’은 기어코 ‘이 맘의 끝에’가 닿는다.

* 이 작업이 첨단기술의 장르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드려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급부에서, 이미 너무나 매끄럽고 세련된 기기들로 가득 채워진, 그리하여 이미 첨단인 우리의 일상과 대조적인, 그러한 오브제 그리고 장르를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드려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지점에서 이 리뷰는 작성됐다. 이 작업을 예술-기술의 접목으로 받아드릴 순 있으나 하이테크놀로지나 아니냐 하는 프레임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은 작업의 맥락을 도리어 납작하게 만드는 오독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the scene is filled with theatrical imagination. In the end, this performance reaches its finale and climax as a group dance of performer-robots (although the physical movements themselves are extremely limited), which is also completed through moderation of spectacle and theatrical imagination.

It is also interesting to see how the unique liveliness and liveliness of the performance genre, which is created by performing in real time, works in this performance. The point is that the performer is a robot, and a robot with a very unique design. Moreover, from a human point of view, the choreography is difficult to predict. Even if the same performance is performed, motions that would be completely different if a human performer were performed are performed by performer-robots. Wouldn't this be a playful characteristic of the object called robot? There is a point where you can't take your eyes off it. A performer-robot whose lower body is a ladder, a performer-robot reaching out to the sky and its scanning, a performer-robot with waterweed hanging from its head as if it had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a performer-robot that looks like a being floating in outer space, only

fan ribs. A performer-robot holding a bare fan... Looking at them, director Peter Brook's famous words ('An empty space with nothing can itself become an empty stage. Someone walks across this empty space and another If someone is watching him, it can be said that the play has already begun.') is not difficult to recall.

At the curtain call, human staff and performer-robot all come together to greet the audience. After the performance, the audience exits and can see the remaining performer-robot troupe members on the stage. Exposed in a non-working state, they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appearances we saw when entering the theater with the house open. However, upon leaving the theater, they all look different than in the first scene. Even the stage equipment such as screens, fog machines, and mirror balls, as well as the lighting around them, look the same. This is because <Song of a Cheap Android 2 (Robot Nocturne)> passed through the theater here as a wonderful new world and an old future, both unfamiliar and familiar. In a very 'dramatic way', this 'serious night' finally reaches 'the end of this heart'.



싸구려 인조인간의 노래말 2 (로봇 야상곡)
Lyrics of Cheap Android 2 (Robot Nocturne)

2020
2022